

“호흡이 살아야 내가 산다”



천룡 스님

(법주사 총지선원 한주)

우리는 ‘삼불(三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삼불이란 무엇인가. 불안 불신 불확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든 게 ‘불안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안’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중심심에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달라져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으니 불안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봅시다. 큰박에나 나가도 사람들이 허락하는 게 보이죠? 나도 허락하고 남도 허락합니다. 모두가 허락거리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삽니다.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물질의 노예가 돼 모두 자신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죠.

늘 변하는 세상, 불안에 시달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쫓고 쫓기는 우리 삶이 반복됩니다. 딱 게 우리 삶이 아닙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대를 핑계 삼아 자꾸 달려갑니다.

지금 사회를 한번 봅시다. 사회에는 엄청난 불신이 있어요. 그 불신은 뭐냐. 나에게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 가족이 남이 되고, 친구가 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립이 썩고 분쟁이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힘의 논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시대는 사는 방법이 딱 하나, 패거리를 모아 힘을 길러서 사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상대를 정복하는, 끝없는 제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 끝 없는 거짓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끝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신뢰 대신 ‘너 얼마 줄 테니 나 얼마 달라’는 식의 아합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순식간에 부서져버립니다. 이런 시대 하에서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미국은



법주사 총지선원에 주석하는 천룡 스님은 잘못된 생각들을 뉘 버려야 청정무구한 본 마음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최고로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만만한 놈, 약한 나라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내부가 안정된 나라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전쟁에 불질을 쏘아 붓는 셈입니다.

바르게 봐야 바른 생각·행동 나와

그 큰 나라가, 그 많은 물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오늘날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청량제와 에너지가 돼야 하는 불교가 오히려 세태를 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극 중의 비극이죠. 불가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옛 고인들이 ‘야광투인선불안검(夜光投人鮮不投劍)’이란 말을 했습니다. ‘밤에 어둠에서 도와주려 불을 주려는데 도리어 칼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도와주려는 사람을 날 해치려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마음은 곧 허공과 같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많이 훤히 보입니다. 자신있게 왔다 갈 수 있고 불편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짙습니다. 어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7>



인욕의 달인-리마 선수와 부루나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3일, 오는 10월에 열리는 더블린시티 마라톤 대회에 브라질의 마라톤 선수인 리마를 국빈자격으로 초청했다는 즐거운 소식이 들린다.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의 한광신도가 저지른 죄에 유감과 반성을 표시하고자 한 것이다. 리마는 지난 아테네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좁은 선두를 달리다 결승선을 불과 5km 남짓 앞두고 갑자기 코스에 뛰어들어 과한에게 때밀러 레이스를 망치고서도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리마의 경주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리마가 불상사가 없었더라면 우승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브라질 선수단은 즉각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하고 금메달 공동 수여를 요구했지만 정작 리마는 “사고가 없었다 해도 내가 우승할 수 있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나는 3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했고 영광스러운 동메달을 받았다”고 의연히 말했다.

보통 선수였더라면 갑작스런 괴한의 방해에 직면하여 분노에 못이겨 경주를 포기하거나 괴한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것이다. 그러나 리마는 달랐다. 부당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욕(忍辱)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렸다. 그는 어느 누구도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못되고 사나워 너를 비난하고 욕하기만 한다면 너는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손이나 돌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손이나 돌로 저를 때린다면, 저는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 비록 손이나 돌로 나를 때리지만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는 않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혹 칼이나 몽둥이로 나에게 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 사람들이 혹 칼이나 몽둥이로 저에게 해를 입힌다면, 저는 ‘저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 비록 칼이나 몽둥이로 내게 해를 입혔지만 죽이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루나에게 말씀하셨다. “가령 그 사람들이 혹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수로나 사람들이 혹 저를 죽인다면, 저는 ‘모든 세존의 제자들은 몸을 싫어하여 혹 칼로 자살하기도 하고 독약을 먹기도 하며 노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기도 하고 깊은 구렁이에 몸을 던지기도 한다. 서방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 썩어 무너질 나의 몸을 조그마한 방편으로써 곧 해탈하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부루나

리마 선수, 선두에서 괴한 공격받고도 의연 작은분노 버릴줄 알아야 지혜 찾을수 있어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도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하였다.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악한 감정이 없다고 강조하며 만나면 포옹을 해 주고 싶다고 한다. 리마는 인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루나경(富樓那經)>에 부처님의 제자인 부루나가 인욕의 좋은 본보기로 묘사되고 있다. 부처님께서 부루나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한 후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 머무르고자 하느냐?” “서방 수로나(輸盧那)로 가서 세상에서 유행하고자 합니다.”

“수로나 사람들은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못되고 사나우며 비난하기를 좋아한다. 부루나야, 네가 만일 그들의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못되고 사나우며 비난하기를 좋아하며 험뜯고 욕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만일 수로나 사람들이 면전에서 거칠고 모질며 심한 말로 비난하고 험뜯고 욕한다면, 저는 ‘저 서방의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 비록 내 앞에서 거칠고 모질며 못되고 사나우며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나를 험뜯고 욕하지만, 그래도 손이나 돌로 나를 때리지 않는구나’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수로나 사람들이

야, 너는 인욕을 잘 배웠구나. 너는 이제 수로나 사람들 틈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떠나 건지지 못한 사람을 건네주고, 편안하게 하지 못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열반을 알게 하라.”

선의를 가지고 대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말로 모멸하고 비방하면 더 참기 어렵다. 부루나는 아직 육체에 머물고 손이나 돌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며 참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감사해 한다고 인욕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상대방이 어떠한 해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심지어 죽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라는 가르침은 너무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다. 다만 바라건대 지극히 사소한 일에 분노하거나 스스로 잘못 생각하여 화를 내는 일만이라도 일상생활에서 고칠수 있다면 좋겠다. 리마 선수의 아름다운 행동이 부루나 존자의 인욕행과 더불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육법등 (六法燈)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불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세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설리동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주관 및 대리점 모집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는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본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가격 1Set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할인)

단! “500분” 계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 하 물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0-33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현대인들에게 천룡 스님은 수식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것을 당부했다.

떻게 하겠습니까? 한발자국 앞으로 가기도 힘들 것 입니다. 불편을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자신을 확연히 보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팔정도(八正道)의 첫 번째가 정견(正見)입니다. 바르게 봐야(正見) 바른 생각(正思)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행동(正行)이 나오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마음, 바른 안목을 잃어버려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행동이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하고 이슬람의 빈 라덴은 서로 하느님이 자기를 축복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를 정의라고 생각하고 남은 악마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사탄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제대로 된 신념에서 나왔겠습니까?

본 마음 잃으면 망념만 들끓어

예루살렘 폭풍의 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삼교(三教)'가 서로 자기들의 성지(聖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럼수록 그 벽은 이름 그대로 폭풍의 벽이 될 뿐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뉘 버리고 '폭풍의 벽'이란 생각을 뉘 버리면 그 자리에서 환해집니다. 잘못된 이

념과 사고를 짝 놓아버리면 그대로 '환희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발단은 잘못 본 것에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름 그대로 불성입니다.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청정무구합니다. 명경지수와 같습니다. 마음이란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주체로서 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렇습니다. 만약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송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잊고 삽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소위 물질만을 사실인양 매달려 삽니다. 부처님은 '전도몽상'이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물질에 매달려 사나 물질에 부림을 당하지 물질을 부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노예가 된지 오래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산물이라고 하니깐 안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업으로 해서 이미 망야화(魔我化)된 마음입니다. 참마음이 아닙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나오는 물이 모두 오수(汚水)인 것처럼, 마음이 미혹해서 분연을 잃어버리면, 생각 하나 하나가 모두가 망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오염된 망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이 진실한 줄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네가 하는 것은 다 그르다'는 요런 착각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새

국회의원들이 '망상 시험'을 하고 있더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문제겠어요. 그 사람 뽑은 것은 국민입니다. 동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 삼독(三毒)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도 결국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자아가 삼독(三毒)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무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울 겁니다.

현대인에게 수식관 수행이 최고

그렇다고 한편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알았으면 그것을 근거로 잃었던 우리 본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서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합니다.

재가자들은 근거 따라 수행법을 택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식관, 호흡법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오 사고가 타지는 것은 성질이 급해스럽니다. 수식관 수행을 한달만이라도 차분히 하다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돈버는 법을 아는 사람이 돈 안 벌겠어요?

"호흡이 살아야 내가 산다. 호흡이 죽으면 나도 죽은 것이다"만 명심하세요.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이 끊어집니다. 방심 돌아가는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살기 위해 정신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리=강유신 기자 · 사진=박재환기자

제방선원에서 수행하며 선지식과 법거랑

천룡 스님은 법주사 총지선원에 서 주석하는 천룡(天龍) 스님(70)은 유독 큰스님들과의 일화를 밝히기를 꺼려한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세상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천룡 스님은

"한때 동화사 금당 등에서 수행을 하며 선지식들과 법거랑을 했지만 다만 서로가 알면 될 뿐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963년 각화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천룡 스님은 30대 초반 비슬산 도성암에서 수

행을 하던 중 삼매에 빠졌다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득 계승을 읊었다.

고요 고요/ 마음 길 다한 곳에는/ 너도, 나도, 산하(山河)도, 세계(世界)도 없다/ 다만 노을 빛 가득 매운 공허(空虛)/ 어디선가 아련히 소리가 들린다/ 문득 눈 들어 바라보니/ 이라 이라/ 능부가 축대(築臺) 밑 발을 걸고 있다.

스님은 그 후 제방선원을 들며 참선 정진했고, 현재 법주사 한주(寒主)로 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건강정보 은행석온열복대

수험생에게 최고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기**

원격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70°C 이상의 강한 열과 생육광선이 방사되어 원격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및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결림등을 자연치 치료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다터에서 북한 3대명산품으로 소량만 생산되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세계최위의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은행석 베개볼, 은행석 목걸이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석을 베개속에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되며 기억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됩니다. 또한 하안압증도 미백효과도 뛰어난요.

하루에 다섯시간 주무셔도 여덟시간 잔것과 같은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늘~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24시간 착용하는 은행석 목걸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어깨, 목의 뻣근함을 부드럽게 하며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의자에 장시간동안 앉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허리교정, 디스크 치료 및 부족한 기억력회복 ※ 허리통증 완화 ※ 허약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수면이부족한 수험생 (특히 여학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문의전화(주)금강다터(02)3210-3170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합격기원 디지털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시 부처님의 자비로 합격의 영광을

최고의불경! 선물로도 최고!

룸비니는 담배 곱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사할, 높은 산 등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들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합격 기원을 위하여 기도 정진시 디지털 불경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 하시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불자님에게 대량 명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의 심금을 울린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들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일무아 됩니다.

합격기원 3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규격 8.5×5.2×2.0cm) 가격 58,000원) 목경 :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격 : 20,000원

● **패키지1:** 디지털불경 룸비니, CD2개 테이프 8개, 특별가 58,000원 (패키지1에서 테이프 3개시 50,000원)

● **패키지2:** 디지털불경 룸비니 CD 1개 특별가 39,000원

● **문의전화:** 02)3210-3178

● **입금계좌:**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수험생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합격의 영광을 금강 필승 염주

합격최적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다. 시험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금강필승염주를 수험생방 또는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현력으로 신기하리만큼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현의 금강필승염주입니다. 북한의 세계최위 금강약석이 주성분이며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격외선, 강현음이란 등이 방사되어 건강에 최고이며, 북한3대 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금강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 수험기간에 금강염주1set을 구입한 분에게는 은행석 베개를 1인분을 증정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현의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현력과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문에 지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비와 영현의 금강염주입니다. 또한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맥준과 화를 쫓고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력을 이루어 기적의 문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개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개신분 ◆ 고신취원 하시는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개신분 ◆ 결혼배달을 찾고 개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개신분 ◆ 중환으로 무병중인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개신분 ◆ 건강(환이) 약하신 분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 합니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흥 B/D 406호
전국대리점모임 시험배정, 불교용품점, 개신서점자